

4/23/23

설교 제목: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3 장 1-10 절

- (속 3: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 (속 3: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절관주** 시 109:31, Jude9
- (속 3:3)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 (속 3: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절관주** 사 43:25
- (속 3:5)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 (속 3:6)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 (속 3:7)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절관주** 사 62:9
- (속 3: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 (속 3:9)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절관주** 사 53:4, 렘 31:34, 왕상 4:25, 미 4:4
- (속 3:1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여덟 가지 환상 중 네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전 세 환상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번 환상은 새로운 시대의 영적, 정치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있고, 사탄이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참소로 하나님 앞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슥 3: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슥 3: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슥 3:3)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는 마치 법정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여호수아는 피고인, 사탄은 고소자....

그러나 여느 법정과 다른 점은 재판관이 고소자를 책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을 변호까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그를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신,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자유의 몸이 되긴 하였으나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와 허물이 가득하여 정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의 고소를 일축하시며, 천사들에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입혀 주시는 아름다운 옷은 의의 옷이요 영광의 옷입니다.

(속 3:4)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고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비록 심각한 죄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제거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하고 깨끗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직접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구원과 의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에 더하여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속 3:5)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정결한 관은 대제사장의 복장 중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씌여진 모자를 가리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환상 가운데 끼어들어,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의 관까지 씌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지위가 확실하게 회복되었음을 입증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운  
후 천사를 통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행하고 지킴으로서 얻어질 결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속 3:6)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속 3:7)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키는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두 조건은 당신의 도를 행하고 당신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의를 드러내고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당신의 뜰을 지키게 될 것이며, 당신과 자유롭게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 집’이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여호와와 율례를 지키면 성전을 다스리고 성전 뜰을 지키며 천상과 지상을  
왕래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대제사장의 중보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중보자적인 역할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피 뿌림으로  
백성들이 속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다 예표의 사람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자는 하늘과 땅을 왕래하며 우리를 중보하실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롬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 9: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 9:25)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호수아는 그림자인 구약 성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성전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 10: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히 10: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 10: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히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 10: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을 가리켜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시며 당신이 당신의 종 싹을 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속 3: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예언을 통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메시아를 예표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를 '싹 (순)'과 '돌'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먼저 '싹 (순)'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사 11: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 53: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렘 23:5)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렘 23: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가지'와 '싹'은 히브리어 '체마흐'로 같은 단어입니다.

'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 3:9)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단번에'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돌에는 완전을 뜻하는 '일곱 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계 5: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피할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씩 (순)'은 처음에는 연약하게 날지라도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사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사 11: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 11: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사 11: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 11: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같이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메시아가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었고, 버림받은 돌이었으나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으며,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주 안에서 성전은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면 이 세상은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벧후 3: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정되어집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정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속 3:1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여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그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광경입니까?

이 모든 일은 '그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 날, 정결함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완전한 평화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국의 완전한 평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고, 그 날에 만국 백성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번영과 평화의 천국 잔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